# 광남일보

조간 제7834호 대표전화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음력4월3일)

## 초록에 물든 담양서 황금연휴 '5감 만족'에 빠진다

문화체육관광부 명예 문화관광축제인 '담양 대나무축제'가 올해로 24회를 맞아 5월 2~6일 닷새간 담양 죽녹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죽녹원 내에 소망등 모습.

### 여기가 핫플 '담양 대나무 축제'

담양 대나무축제가 5월 2일부터 6일까지 담양 죽녹원 일대 대나무의 숨결 속에서 다양한 문화 공연, 전통 체험, 자연 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축제장을 가득 채운 바람 소리와 함께 걷다 보면, 대나무의 생명력과 그 속에 깃든 담양의 역사와 문화를 만날 수 있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대나무의 멋과 여유를 느끼며 지속 가능한 자연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 내달 2~6일 전 세대 공감 콘텐츠 마련
### 하루 종일 즐기고 하루 더 머무는 축제
### 메타랜드 등 입장료 환급 상품권 제공
### 기념품 판매·담빛 버스킹데이 등 풍성
### 사진 명소 설치·LED 무빙라이트 선봬
### "역사·문화 담긴 대나무 속 추억 만끽"

담양 대나무축제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담양 죽녹원 일원에서 대나무의 숨결 속에서 다양한 문화 공연, 전통 체험, 자연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담양 대나무축제 모습.

문화체육관광부 명예 문화관광축제인 '담양 대나무축제'가 올해로 24회를 맞아 5월 2~6일 닷새간 담양 죽녹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축제는 '담양 초록에 물들다-대나무의 향연 with Daenamoo'라는 주제 아래, 낮과 밤을 아우르며 머무는 즐거움이 가득한 체류형 축제로 꾸며졌다.

개막식은 5월 2일 오후 5시 전남도립대학교 주차장 일원에서 열린다. 오후 5시 30분부터는 이찬원, 지창민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과 함께 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져 축제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또 가족 단위 방문객을 고려한 다양한 신규 콘텐츠가 마련돼 모든 세대가 함께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축제의 주요 무대는 전남도립대학교 주차장 일원으로, 개막식과 공연을 인근 향토음식관에서 여유롭게 즐기며 지역 먹거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

축제장 전역에는 담양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먹거리 부스, 담양 농특산물 판매관, 디저트 판매존, 전시 및 홍보 부스 등 총 150여개의 부스가 운영되며,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먹거리 부스에서는 지속 가능한 축제를 위해 일회용 용기 대신 세척·소독을 거친 다회용기를 사용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하루 종일 즐기고, 하루 더 머물며 축제가 주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죽녹원과 메타랜드 입장료를 환급형 상품권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죽녹원은 축제 기간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 무료 개장을 통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3일에는 '담양 군민의 날' 행사가 개최되며, 지역 예술인 공연과 김태연의 축하 무대, 오후 6시부터는 김경호 밴드가 출연해 열기를 더한다.

4일에는 대나무 고장의 정체성을 가득 담은 죽신제와 죽순요리 경연대회가 열리며, 어린이날인 5일에는 베베핀 공연,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마술 공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이 준비됐다.

전남도립대 항공·드론혁신융합대학사업단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드론 제작 체험도 마련돼, 선착순 70명에게는 대나무 드론을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도 준비돼 있으며, 저녁에는 가수 황가람의 무대로 축제장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이외에도 무등산국립공원, 한국정원문화원과 어린이 팝업스토어, '팬더를 잡아라' 게임, 무료 즉석 네컷사진관, 대나무축제 기념 티셔츠 등 기념품 판매, 담빛 버스킹데이 등 풍성한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축제 마지막 날인 6일에는 대나무 앙상블 음악회와 한국국악협회 전통음악 공연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행사 기간 축제장 인근에 마련된 프로그램도 준비를 마쳤다.

2일 꽃탑 조형물 일원에는 전국 청소년 그림 그리기 대회, 시니어 모델 패션쇼가 진행되며, 3~6일 종합체육관에서 전국 드론 스포츠 경진대회가 열린다.

어린이날인 5일 추성경기장에서는 대나무드론 조립·체험을 할 수 있다.

행사 기간 관광정보센터에서 대나무 가훈 써주기, 운수 대통 대박 터뜨리기가 진행되며, 한국대나무박물관에서는 대나무공예 명인과 함께하는 대나무공예 체험이 준비됐다.

이와 함께 방문객이 경관을 보며 축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분수대 목백합, 죽녹원 입구, 축제장 내에 사진 명소를 설치하고 향교교, 죽녹원, 향토음식관 앞 쉼터, 주 무대 인근에 소망등을, 봉황루에는 LED 무빙라이트를 각각 설치해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선보일 예정이다.

담양 대나무축제는 오래 역사를 가진 축제다.

고려 초부터 매년 음력 5월 13일 죽취일(竹醉日) 또는 죽술일(竹述日)로 정하고, 전 주민이 마을 주변이나 야산 등에 대나무를 심고 작업이 끝나면 죽엽주 등을 마시면서 마을 주민의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는 화전놀이였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1920년대 초 명맥이 끊겼지만 1999년부터 군내에서 실시하던 군민의 날 행사, 농업제 등을 통·폐합해 군민의 날(매년 5월 3일)을 전후로 대심는 날(죽취일)의 의미를 되살리고 대나무를 통한 주민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대나무와 선비정신 문화를 테마로 한 축제를 1999년 개최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담양만의 낭만 가득한 콘텐츠를 총망라한 이번 축제로 관광객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며 "역사와 문화의 정취가 깃든 대나무의 고장 담양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담양 대나무축제는 온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참여형·체험형 축제, 대나무 신산업 활성화로 관광상품 판매촉진은 물론 녹색산업화를 통한 산업 경제형 축제, 담양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의 브랜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담양=조성웅 기자 jnwnews@gwangnam.co.kr

지난해 열린 제23회 담양 대나무축제 소원등에서 관람객들이 행사를 즐기고 있다.